

2. 왜 저는 휴거 되지 않고 남겨졌나요?

2014.10.07

(예수님) 나는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하기위해 말해. 나는 너희들을 남겨놓지 않았고 너희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크나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때때로 심지어 배신감조차 너희들을 압도할 거야.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아직 여기 있고, 왜 내가 남겨졌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들로 가득 찰거야.

너희들은 휴거로 인해 공석이 되어버린 모든 산업, 비지니스 그리고 모든 돈이 되는 사업들의 여러가지 흥미로운 기회들과 직업을 가지려고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게 되는 유혹에서 견디어 내야되.

심지어 너희들이 고통과 혼란스러움에 있더라도 이런 유혹들과 불안정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10배 100배로 너희들의 모든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진심 어린 마음의 변화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나는 너희의 두려움들을 가라앉히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거야.

너희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야. 그 날에 너희들은 더욱더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은 여전히 정말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보물들이고 나는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

“주님 왜요? 왜 제가 남겨졌나요?” 라는 의문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솟구칠거야.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절대로 휴거에서 제외되지 않았었어. 휴거는 나의 모든 자녀들, 참된 나의 교회, 나의 몸, 나의 신부들을 위한 나의 자비로운 준비였어. 너희들은 살면서 지구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간에 증인으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사람들 중의 일부분이었어.

너희들은 처음에 시작을 잘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세상에 자리잡기 시작했어. 너희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이란 타이틀과 소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더 그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종종 너희들의 과거에 많은 방해를 받았고, 우리가 함께 하였던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어.

너희는 믿음 보다도 세상과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고, 그것은 너희들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결합하여 너희들 주변의 다른 영혼들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어. 너희는 그들과

그들이 소중히 가지고 있던 것을 멸시하기 시작하였고 내가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뻐하는 그들을 경멸하고 비웃었어.

그리고 그 때에 나는 돌아왔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어야 했던 것들이 너희 앞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서있는 것 뿐이었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믿지 않았고, 기도하면서 지켜보지 않았고, 내가 저녁에 도둑처럼 왔을 때 너희들은 준비 되어있지 않았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데려갈 수 없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부터 나한테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되.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내가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이름을 항상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하고, 나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나를 두 번 다시는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라.

너희들의 마음의 눈 앞에서 내가 항상 있도록 해라. 이것도 반드시 기도로 구해야 하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나는 언제나처럼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되. 나를 느끼고 나와 상호작용하고, 항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처럼 나에게 이야기해야 해. 나는 너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너희들 자신의 눈에 정말 작아지면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믿음직한 친구가 될 거야. 작아지고 어린이 같은 영혼들보다 더 나를 그들에게 이끄는 영혼은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여전히 크게 당황스러워하는 상태에 있고 너희들 주변의 세상은 끔찍한 혼란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나는 또한 너희들이 이미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화와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알아.

나는 계속해서 이 선물들을 줄 것이고 너희들은 놀랍도록 명확하게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사람들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제공할 거야.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너희들은 빠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기 시작할 거야. 심지어 말도 안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모든 것이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고, 나의 동의없이 허용되어지는 것은 없어. 너희들을 위해 미리 모든 준비를 해놓았어.

너희들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들의 마음과 눈을 나에게 두어라.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소중한 자녀들이고, 나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밤 낮으로 지켜볼 나의 천사들을 준비해 놓았어.

너희들을 위해 이들이 제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사람에게 넘쳐나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줌으로써 나의 사랑의 보살핌과 너희들에 대한 나의 신실함을 확신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들 자신의 무너짐에서 깊은 겸손함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나와 하나님의 왕국에만 마음에 둔 너희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할 거야. 나는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모으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나는 그들을 이 시련과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할 거야.

그들은 두 번 정화되어져 천국의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빛나게 될 거야. 그들은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영광스럽게 이겨내어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야.